세계화 시대의 미국-멕시코 국경: 삶과 죽음의 공간

김미경*

〈차 례〉

1. 서론: 세계화 · 국경 · 이주
2. 제국과 경계의 성립: 1846년 미국-멕시코전쟁과 제국의 부상
3. 세계화와 멕시코: 말린케(La Malinqhe)와 신자유주의
4. 세계화의 위기: 나프타(NAFTA)와 '깨어진 약속'
5. 세계화의 교차로: 마낄라도라 산업과 '삶의 공간'
6. 결론: 혼종적 주체와 '제3의 공간'

【국문초록】

"경계 사유하기(border thinking: 미뇰로)", "사이성(In-betweenness: 바바)",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오르티스)", "혼종성(Hybridization: 칸클리니)", "융합(Accumulation)", "세방화(Glocalization)"와 같은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과 국가를 근간으로 '경계-짓기'에 몰두하던 근대성을 비판하며 탈근대를 맞아 '탈영토', '탈경계'를 기획하기 위해 등장해 왔다. 이 연구는 우리 시대의 지배 담론으로 학문적 위치를 획득해가는 세계화의 현상을 미국—멕시코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세계화는 20세기의 세계적 위기와 관련되면서 이 시대의 지배담론으로 자리

* 대구가톨릭대학교

잡았으며, 정치, 경제, 문화 및 이데올로기의 모든 면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은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 보편과 특수, 강자와 약자 등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문화적 세계화가 지니는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이 논문은 세계화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계지대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과 문화적 혼종성으로 인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미래의 대안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현상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경계지대의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반 이론들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공간이 '죽음의 공간'인 반면, '혼종적 주체들(hybridity subjects)'에 의한 '삶의 공간'이며 나아가 '네이션'을 뛰어 넘는 '포스트-네이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얽힌 최근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둔다. 첫째, 세계화란 어떤 현상이며, 특히 미국-멕시코상황에서 세계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세계화와 국경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특히 국경지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미국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으며, 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제국을 논의 하는가? 넷째, 세계화로 인한 이주의 문제는 멕시코와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이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세계화와 제국의 모습을 재현하며, 이 장소가 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임을 증명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개념을 바탕으로 슈테거(Manfred B. Steger)[1]의 '세계화 개념' 및 스피박(Gayatri Chkraborty Spivak)의 '하위주

체', 칸클리니(Néstro Garcia Canclini)의 '혼종문화', 미뇰로(W. Mignolo)의 '경계사유하기', 바스콘셀로스(J. Vasconselos)의 '우주적 인종' 등 다양한 개념들을 차용하고, 나아가 경제적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에 직면한 현대 국가의 국경(bordering)과 탈국경(debordering)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성 속의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포스트-국가체제적인 새로운 '제국'을 찾는 것에 천착한다.

주제어: 미국-멕시코전쟁, 미국-멕시코 국경, 세계화, 제국, 경계, 라티노, 치카노, 마낄라도라, 아주, 혼종성, 제3의 공간.

1. 서론: 세계화 · 국경 · 이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은 새로운 지구화(세계화)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증명할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과 국가를 경계로 제국주의를 환호하던 근대성 속의 민족국가는 세계화와 더불어 탈영토 · 탈경계를 부르짖으며 탈근대로의 전환을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국의 그림자는 내 · 외부적으로 또 다른 경계를 기획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

---

1) Manfred B. Steager, *Globalisms: The Great Ideological Struggle of the Twenty-First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만프레드 슈테거는 세계화를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 그는 글로벌리즘을 'Market Globalism', 'Justice Globalism', 'Jihadist Globalism', 'Imperial Globalism'으로 분류하고 글로벌리즘도 윤리적 시각이나 기준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성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근대성 속의 국경은 권력의 상징이며 장소임을 표명한다. 국경 수비대와 둘러쳐진 철조망은 영토의 경계를 나타내는 주권의 극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이러한 국경의 모습이 세계사의 뒷면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1980년대 이래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위로부터는 슈퍼내셔날리즘(supernationalism)을 야기시키고, 아래로부터는 지역주의(regionalism)와 민족적 내셔날리즘(ethno-nationalism)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물리적 강제력을 발휘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의 장벽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에 직면한 현대 국가의 국경(bodering)과 탈국경(debodering)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래의 대안공간을 탐색하는데 있다. 탈국경의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인구와 경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발생해 왔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국경화(bodering)와 탈국경화(debordering) 그리고 재국경화의 모습은 단지 경계로서의 국경을 넘어서서 두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역사를 보여준다. 특히 1980년 이래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국경지대의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상상계를 형성한다.

오늘날의 세계화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의 압축이 발생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은 모든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2]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

2) 세계화 이론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미경, 「세계화·세방화·다문화-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9, 2010, pp. 207-252. 그리고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에 관해서는 김미경, 「라틴아메리카의 세계화와 반세계화- 사파티스타 운동과 저스티스 글로벌리즘」, 『인문연구』 60, 2010, pp. 101-144.

과 인구 이동으로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근거한 사회와 문화적 추이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슈테거(Manfred Steager)의 세계화 개념[3]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세계화 현상은 미국 중심의 '제국적 세계화'와 '시장적 세계화'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지하드 세계화'와 '정의적 세계화'가 대립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낄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멕시코 국경과 연관된 '시장적 세계화'는 트랜스내셔날 노동자들의 계급적 위계관계를 중심으로 인종과 젠더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국적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멕시코 사파티스타(Zapatista)에 의한 '정의적 세계화'는 9·11테러에서 보이는 바처럼 '지하드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 상상계를 형성할 것을 상정한다.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대량이주와 전자매체,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제화, 다국적화가 초래되어 국경 없는 세계 혹은 하나의 세계라는 공간적 탈 중심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세계체제론적인 측면에서는 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며,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을 야기시켜 정체성의 위기를 조장한다. 특히 세계화의 특징적 양상인 이주의 문제는 문화접변과 문화적 혼종성을 기반으로 '혼종 주체(hybridity subject)'를 탄생시킴으로써 혼종성의 층위는 한층 더 심화될 뿐 아니라 근대성 전반에 의

3) Manfred B. Steager, *Globalisms: The Great Ideological Struggle of the Twenty-First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만프레드 슈테거는 세계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 그는 글로벌리즘을 'Market Globalism', 'Justice Globalism', 'Jihadist Globalism', 'Imperial Globalism'으로 분류하고 글로벌리즘도 윤리적 시각이나 기준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성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문을 제기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리적으로는 가깝게 위치하지만, 제1세계와 제3 세계라는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두 국가의 관계를 '개입과 간섭'이라는 역사적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어 왔다. 양국은 리오그란데 강의 수자원으로부터, 에너지, 마약퇴치, 노동력 공급, 이주 및 불법이민의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주 특히 불법이주가 문제가 된다. 이주의 문제는 '지구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지구공동체의 보편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지만, 이 현상은 모든 곳에서 인종화, 계급화, 젠더화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마낄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주의 문제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차별의 공간이며 혼종의 교류공간인 반면, 한편으로는 생성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혼종성의 공간임을 입증한다.

미국-멕시코 국경문제에서 나타나듯이 현재는 이주의 문제를 통 해 분명해지는 근대 체제의 '탈전통'적인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구성을 철학적, 사회적, 이론적으로 전망해 보며, 나아가 새로운 관점에서의 진정한 세계화와 제국 그리고 경계 넘나들기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세계화 현상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마낄라도라 산업의 발전, 국경지대의 노동력 착취와 억압, 여성 살해와 성적 착취 등의 문제는 제국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끊임없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재현함으로써 오늘날 제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세계화로 인한 제국과 경계의 윤리학을 다시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다.

지금까지의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국경지대 산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부각시

키는데 집중해 있다.[4]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5] 교류와 혼종을 배경으로 다공성의 특성을 보이는 이 공간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때로는 국가권력이 무력화 되는 '제3의 공간'으로 세계화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다.[6] 가

4)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관한 기존의 시각들은 대별하여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국경지대의 경제적 측면인 마낄라도라 산업과 연관된 연구들, 둘째, 정치, 행정적 측면의 불법이민에 관련된 문제, 셋째, 사회적 측면의 정체성 및 여성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 문화적 혼종성 및 인종주의(라티노 및 치카노)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 외 소수 환경문제, 다문화주의 문제 등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국내에서는 임상래 교수가 미국 내 치카노와 라티노의 문제를 적극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aul Ganster·David E. Lorey, *The U.S.-Mexican border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New York, 2008; Rachel St. John, *Line in the Sand: A History of the Western U.S.-Mexico B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Denise A. Segura·Patricaia Zavella, eds. *Women and Migration in the U.S.- Mexico Border*, Duke University Press, 2007; Eric John warner, "Borderlands and Identity-Migration and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3.

5) 최근의 연구들은 단지 마낄라도라 산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분석이나 불법이주, 또는 매춘, 섹스관광, 마약 등 부정적인 측면의 조명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두 국가 사이에 끼여 있는 주변부적 혼종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과 사람을 감시하는 '국경 판옵티콘'이라는 관점, 또 월경 통근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적·인종적 혼종성과 연관하여 두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주권 개념이 발생한다는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난다. Julie Mostov, *Soft Borders: Rethinking Sovereignty and Democracy*, Palgrave Macmillan, 2009; Magalí Murio Tuñon, "Enforcing Boundaries; Globalization, State Power and the Geography of Cross- Border Consumption in Tijuana, Mexico",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2010; Oscar J. Martinez, *U.S.-Mexico borderland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owman & Littlefield ed., 2006.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을 포스트-나프타 멕시코에 나타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파악하는 관점도 새롭게 나타난다. Eduardo Barrera Herrera, "The US-Mexico Border as a Paradigm of Post-Nafta Mexico", *Organization*, 4-4, 1997, pp. 487-495.

장 가까우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두 국가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상호 교감하는 모습은 마치 국경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공간'이며,[7] 그곳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공통체'를 이룬듯한 인상을 준다.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는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개념을 바탕으로, 슈테거의 '세계화 개념', 칸클리니의 '혼종문화', 스피박(Gayatri Chkraborty Spivak) 의 '하위주체'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차용하고, 현상학적으로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 이주민, 인구수, 마낄라도라 산업과 연관된 각종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이론 및 현상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미래의 대안공간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최근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얽힌 최근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로 논의한다. 첫째, 미국-멕시코상황에서 세계화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세계화와 국경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특히 국경지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미국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으며, 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제국을 논의하는가? 넷째, 세계화로 인한 이주의 문제는 멕시코와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마지막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어떻게 미래의 대안공간의 모습을 재현하는가?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에 직면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bordering)과 탈국경(debordering) 현상을 중심

---

6) Patricaia Fernández-Kelly · Douglas S. Messy, "Border for whom? The Role of NAFTA in Mexico-U.S. migr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0, 2007, pp. 98-118.

7) 임상래,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2004, pp. 193-233.

으로 세계화 시대에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체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제국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모순을 성찰함으로써 포스트-네이션의 미래공간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2. 제국과 경계의 성립: 1846년 미국-멕시코전쟁과 제국의 부상[8)]

멕시코 혁명의 근원을 제공한 독재자 디아스(Porfirio Diaz)가 남긴 유명한 말인 "오! 불쌍한 멕시코여, 신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있고, 미국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 라는 말로 대변되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지정학적 숙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양국관계의 근원을 이룬다. 오늘날 총 3,141km에 달하는 국경은 엘파소-시우닫 후아레스(El Paso-Ciudad Juárez)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리오그란데 강이 국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의 고원사막지대가 가로지르고 있다. 미국의 4개 주(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와 멕시코의 6개 주(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ón, Tamaulipas)에 걸쳐있는 이 국경은 단지 행정적 경계일 뿐 아니라 앵글로 색슨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라는 문화적 경계이기도 하다.

이 경계의 역사적 기원은 1846년에 발발한 미국-멕시코전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 전쟁의 기원이 된 1836년의 텍사스분리독립운동(Texas Rebellion)은 결국 알라모전투를 초래했고, 미국의 팽창주의를 주장하던 포크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지함으로써, 텍사스의 영토 회복을 원하던 멕시코와 경제적 이

8) 이 논문에서 '제국'이라는 말의 범위는 세계화 시대의 미국에 한정하며, 주로 네그리·하트가 제시하는 제국의 개념과 범위를 기반으로 한다.

윤추구를 배경으로 한 미국 간에는 전쟁이 불가피해졌다.[9] 이 전쟁은 멕시코가 패배함으로써, 1848년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과달루페-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Hidalgo)'이 체결되고, 멕시코는 텍사스, 뉴 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영토를 미국에 이양하게 되었다.[10]

정치적 패권다툼에 의해 영토의 변경이 이루어지자, 이곳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멕시칸-아메리칸(Mexican-Americans)이 되었다. 그야말로 '자고 나니 국경을 넘어 미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국경이 우리를 넘어 미국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역사적 결과물은 '국경'과 '영토'이다. 미국은 이 전쟁으로 오늘날 미국의 영토를 완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지만, 멕시코는 영토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미국-멕시코전쟁은 '팽창주의', '노예제 논쟁', '인종주의'와 같은 중요한 의도[11]가 반영되어 있지만 '국경'이 확정되는 중대한 의미

---

9) 미국-멕시코전쟁 당시 대통령과 의회, 또 의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양재열, 「멕시코 전쟁(1846-1848) 시기의 의회-전쟁 반대파의 딜레마」, 계명사학회, 『계명사학』 11, 2000, pp. 119-137.

10) 미국-멕시코전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임상래, 「미국-멕시코전쟁의 이해: 간과된 성격들과 멕시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4-3, 2011, pp. 97-119;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2003, pp. 199-233; 「멕시코-미국 양국 관계에 관한 소고-Maxamerica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4, 2002, pp. 101-126; 「미국-남서부의 문화·지리적 이해」, 『라틴아메리카연구』 22-1, 2009, pp. 75-98.

11) 미국-멕시코전쟁에 가려진 성격 중의 하나는 이 전쟁이 노예논쟁, 즉 노예제 확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인종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 전쟁이다. 미-멕 전쟁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John, S. D. Eisenhower, *So Far From God: The U.S. War With Mexico, 1846-1848*, Random House, New York, 2000을 참조.

를 담고 있으며, 이 전쟁으로 미국은 팽창주의를 초석으로 제국주의를 시행하면서 미국이 제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이룬다. 당시 이 전쟁을 두고 포크 정부의 침략, 정복, 약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전쟁은 '명백한 운명론'과 '백인의 의무(white burden)'에 의해 정당화 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는 거침없는 활로를 걷게 된다.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9세기 유럽의 산물인 사회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월한 민족이 허약한 혈통을 가진 멕시코인을 절멸시키는 것은 자연의 일부이며, 미국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럽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기원은 1898년 미-서 전쟁(미국-스페인 전쟁)으로 간주한다.[12] 미국은 이 전쟁으로 하와이,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의 영토를 획득하며 영토적 측면에서나, 패권의 측면에서 세계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팽창주의가 본격화 된 것은 미-서 전쟁이 아니라 미-멕 전쟁이었다. 미-멕 전쟁은 미국이 독립 이후 수행한 최초의 전면전으로 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성격이 드러난 전형적인 침략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텍사스를 병합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대하여 태평양에 이르게 되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면서 '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세계화 현상이 일반화 되면서 미국은 다시 '제국' 담

12) 미국의 '팽창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개념상의 분리는 민주당의 W. J. Bryan의 필리핀 합병 반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팽창주의는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온 가까운 영토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제국주의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타 민족이 거주하는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었다.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강택구,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성격과 동향」, 경주사학회, 『경주사학』 26, 2007, pp. 183-198.

론의 중심에 서 있다.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The World is Flat』[13]에서 "세계는 불균등하며, 세계는 미국화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14] 로날드 스틸(Ronald Steel) 또한 미국은 '자애로운 지도자'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장 편협한 제국'이며, 미국은 '가장 미천한 세계주의자'이며 '다문화국가'를 주장하지만 그 이미지는 '단일 문화적인 국가'라고 비판한다.[15]

세계화 패러다임 속의 '제국' 담론의 담지자 역할을 한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l Hardt)에게 제국의 의미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국의 개념은 영토성과 이념성의 횡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 준다. 전후 제국의 개념은 세계 질서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대한 가장 일상적인 질서표상 개념으로 인식되며,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회귀되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 제국을 거론할 때 미국은 주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경제적 중심부의 역할을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1846년의 미-멕 전쟁,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예외주의, '신의 섭리' 이론 또는 고립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 제국의

---

13) Thomas Friedman,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Straus & Girous, 2005, 이건식 역, 『세계는 평평하다』, 21세기 북스, 2013.

14) 토마스 프리드만은 세계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화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옹호한다. "우리(미국)는 호랑이가 아니다. 세계화가 호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호랑이를 잘 타며, 현재는 사람들에게 올라타거나 길을 비키라고 얘기 중이다. 우리가 이 호랑이를 그렇게 잘 타는 이유는 우리가 새끼시절부터 키웠기 때문이다" Thomas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1999. 김덕호, 「미국화인가? 세계화인가?」,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24, 2006, p. 174에서 재인용.

15) Ronald Steel, "America Remains No. 1", in the *Contemporary Reader*, Gary Coshgrian ed., New York: Longman, 1998. 김덕호,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정치적 기원으로 미-멕 전쟁이 언급되는 이유는 미-멕 전쟁과 그로 인한 국경의 설정은 제국적 지배 주체가 영토성과 탈영토성 사이를 횡단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며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몸소 체현하는 실제적 장소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국의 시대에 제국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진보와 문명의 선봉을 의미했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제국이 붕괴된 이후 제국이라는 말의 긍정적 의미가 사라졌을 때, 그 말 자체는 이제 '추악한 말(dirty word)'이 되었다. 더 이상 제국은 권력, 진보와 문명의 상징이 아니며, 전후 탈식민과 냉전의 질서 하에서 제국은 불의한 지배와 폭력의 표상으로 변질되었다.[16]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식민지는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왜 지금 다시 제국을 논의 하는가? 박지향은 결국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7]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론'에서 "제국은 탈영토적이고 탈중심적이며 외부 경계를 갖지 않는 새로운 세계질서로써 이는 21세기의 지구적 작동 원리자체를 의미한다"[18]고 말한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근대적 주권국가인 국민국가는 종말을 맞

16) 이삼성, 『제국』, 소화, 2014, pp. 373-375.

17) 박지향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는 과거 식민시대의 유산 때문으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5이 옛 유럽제국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문화적·종족적 경계를 무시한 채 그어진 국경이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과 분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유산인 언어, 제도, 이념과 이상 등이 여전히 신생국의 법, 행정체계 및 경제적 하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제국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지식인들의 관념 및 담론, 기억과 상상력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미국이 '제국적 기획'을 시도하면서 주변부 국가에 대한 권력과 패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네 번째는 '세계화 현상'으로 인한 세계제국의 등장 때문이다. 박지향, 「왜 지금 제국인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26(2005), pp. 3-23.

18) 네그리·하트, 『제국』, 윤수종 역, 이학사, 2001.

은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조차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 함께 혼합정부로 구성되어 새로운 제국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진정한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중심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9·11 사건 이후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제국적 통제의 수단인 핵무기, 자본, 에테르를 중심으로 제국 사령부에 위치하면서 주변부 국가들을 제국 하에 포획하고 있다.[19]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에게 '제국'이란 영토를 근간으로 하는 중심 권력과 경계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제국'은 지구적 영역 전체를 통합하는 탈중심적이고 탈영토화 된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 제국은 진정한 제국이 아니며 미국은 제국의 중심에서 과거의 제국주의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제국 논리가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때, 세계화 시대에 제국의 논리를 재확인 한다는 것은 근대성 속의 '네이션'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선 '포스트-네이션'을 상정해 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 제국에 포획되어 가장 고통을 겪는 국가 중의 하나가 바로 멕시코일 것이다. 하나의 경계를 중심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제1세계와 제3세계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는 엄밀히 말한다면 제국이 아닌 제국주의 작동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초국경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미국은 제국의 중심부에 멕시

19) 네그리와 하트에 의하면 제국적 통제의 수단은 세 가지-핵무기, 돈(자본), 에테르-라고 지적한다. 첫째, 핵무기는 절대 폭력으로,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핵무기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그리고 근대적 주권에서 제국으로 이행한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돈은 전 지구적 통제의 두 번째 수단이다. 에테르는 세 번째 제국의 통제 매개체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에 속한다. 네그리·하트, 『제국』, pp. 345-347.

코는 제국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3. 세계화와 멕시코: 말린케(La Malinque)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은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아스(Porfirio Díaz) 대통령 통치하에서 시작된 외국자본의 유입은 외국인의 멕시코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동안에 멕시코는 외국의 차관을 이용하여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였고, 결국 외국 자본에 의해 멕시코는 토지와 유전 및 광산을 강탈당하였다. 오늘날 멕시코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말린케주의(malinchismo)'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 코르테스(Hérnan Cortées)를 환영했던 말린케(La Malinche)[20]와 디아스 시대의 무차별적인 외자 도입,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멕시코에게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역사적 결과를 보여주는 '데자뷰'인 셈이다.

미국과 멕시코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지닌 국가가 또 있을까? 현실이면서도 가상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매일 월경을 하는 사람들만도 '15만명'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의 모습이다. 신은 멀고 미국은 가깝다는 디아스의 탄식은 오늘날 멕시코에게 어떤 의미일까?

멕시코의 범주에서 신자유주의란 결국 영국, 프랑스, 미국, 최근에는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배제하고 우리

20) Sandra Messinger Cypess, *La Malinche in Mexican Literature: from History to Myth,*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협력하자"라는 아젠다를 내세워 결국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멕시코가 굴복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21] 하비(David Harvy)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 계급은 미국의 정책에 그들 스스로를 동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법적 보호 아래에서 일하는 것에 다소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멕시코에게 이 말은 미국과 캐나다와의 정치적, 경제적 연관성 속에서 결국 북미자유협정(NAFTA)이 창안되고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1994년 치아파스(Chiapas)에서 발생한 사파티스타 운동(Movimiento Zapatista)은 나프타에 의해 채택된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멕시코 정부와 살리나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운동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이루는 무차별적 자유경쟁체제는 멕시코 북부 지역의 옥수수 경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부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켰다.[22] 사파티스타운동은 치아파스처럼 소규모 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지역이 세계 시장에 노출된 결과에 경종을 울리고 그 진실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반세계화 운동의 일환이다.[23] 사파티스타운동이 증명하는 바는 세계화의 전 지구적 무역체제가 치아파스처럼 고립된 지방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파티스타에 의한 군사적 반란은 외국인들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들어 결국, 페소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멕시코 경제는 파탄을 경

---

21) David Harv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ckwell, 1989, p. 69.

22) 예를 들면 치아파스 농부들이 1톤의 옥수수를 생산하는 경비는 약 270달러이지만, 미국 농부의 경우는 약 92달러에 불과하다. http://www.american.edu/ted/ice/chiapas.htm. Eric John Warner, *Borderlands and Ientity-Migration and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3, p. 32에서 재인용.

23) 김미경, 「라틴아메리카의 세계화와 반세계화: 사파티스타운동과 저스티스 글로벌리즘」, 『인문연구』 60, 2010, pp. 101-144.

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세계화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국경 또는 국민적 정체성과 같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 또는 멕시코의 국민적 정서나 감정과는 별개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미국인 또는 멕시코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대 국가와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공간의 기업가들은 영토와 국민국가라는 근대성을 넘어 탈근대성 속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축소화된 지구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의 형태는 트랜스-내셔날 노동력에 대한 계급적 위계화를 재설정하여, 국제 이주 노동자들은 국가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마낄라도라 산업에서처럼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가사 및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미국 내로 편입된다. 결국 멕시코 여성들은 노동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성적 억압 및 착취와 연관하여 인종, 젠더, 계급의 관점에서 단층적이 아닌 중층적 소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24]

오늘날의 세계화는 통신, 음악, 종교, 음식, 패션에 있어서의 전 지구적 트랜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국경은

---

24) 아감벤(G. Agamben)은 이들을 '초국적 전문 기술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국가나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예외상태'. '국가 없음'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표현한다. 스피박(Gayatri Chakraboty Spivak)은 '국가 없는 이들이 과거처럼 난민이나 디아스포라와 같은 범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을 벌거벗은 삶(bare life)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국가 권력의 작동을 살필 것을 주장한다. Judith Butler · Gayatri Spivak, *Who Sings the Nation-State?*, 주해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p. 118.

더 이상 근대성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철통같던 경비는 구멍이 숭숭난 가상의 장벽에 불과하게 되었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세계화의 상호 작용의 생생한 결과물이다. 이 국경은 여전히 물리적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두 세기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은 인구 증가 현상을 비롯하여 토지운용, 항공 운항의 증가, 라디오, 음악 영화 및 출판 등의 문화교류가 점점 더 증가해 왔다. 이제 국민국가 제도는 더 이상 자신의 주권적 공간에 이러한 전 지구적 문화의 흐름을 집결시키는 경계 설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초국가적 생활양식이 일반화 되고 안보와 주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실천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세계화와 이주의 현상으로 이제 더 이상 영토와 주권을 바탕으로 조국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삶의 형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멕시코에게 '말린케'의 교훈을 되새겨 주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조류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4. 세계화의 위기: 나프타(NAFTA)와 '깨어진 약속'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 Stiglitz)는 "나프타의 깨어진 약속"이란 칼럼을 통해 나프타의 효과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는 나프타로부터 기대한 만큼 얻은 것도 없으며 '안정적 발전'보다는 오히려 '저성장 체질'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프타 예찬론자들은 협정 자체가 멕시코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자이며 반-이민론자들은 나프타의 성공이 결국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불법이민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대통령은 나프타 체결은 곧 '멕시코의 제1세계로의 진입'이라고 주장했고, 미국의 법무장관이었던 재닛 리노(Janet Reno)는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근사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이민자들의 행렬을 줄일 수 없다. 불법이민자들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멕시코의 강력한 경제성장이다. 나프타는 멕시코에 일자리—만약 실패한다면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주할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25] 라고 말함으로써 나프타의 확실한 성공을 예측했다.

그러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수산업의 침체를 동반한 역내무역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멕시코는 1999년에 세계 34/104, 2004년에 48, 2005년에는 59, 2015년에는 61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26] 경제성장률 실적도 나프타 이전 10년과 비교해 볼 때 별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1960년대와 70년대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미달되었음을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하락했고, 노동시장의 비공식 부문화도 크게 진행되었다.

마낄라도라 산업으로 제조업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얻어지는 임금과 다국적기업들의 공공요금 납부 정

---

25) Demetrios Papademetriou, "The Shifting Expectations of Free Trade and Migration", in Audley et als, *NAFTA's Promise and Reality: Lessons from Mexico for the Hemispher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p. 43, 이성형, 앞의 논문, pp. 167-168에서 재인용.

26) http://www.weforum, The global Competitives Report-2015.

도에 그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연관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노동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위기는 식량 주권의 상실, 일자리의 대규모 상실로 이어져서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농업노동자의 이촌 현상과 미국으로의 불법이주는 점점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프타의 '깨어진 약속'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이주민'의 문제이다. 연간 50~60만 명에 이르는 불법이주민들이 미국 국경을 넘으면서 미국 내 치카노를 포함한 라티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내 반 이민 정서가 보수적 정치인을 비롯하여 일반민 사이에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27]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라티노 중 가장 다수(약 80%)를 차지하는 인구는 치카노[28]로서 미국 내 라티노와 치카노에 관한 이슈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한편, 현대 세계가 극복해야 할 초국가적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건국 초기부터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이민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특히 2001년 9·11사태

---

27) 나프타와 멕시코의 문제를 다룬 국내 논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이성형, 「나프타와 멕시코(1994-2006)」,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76, 2007, pp. 165-195. 이성형은 이 논문에서 상세한 통계 자료와 더불어 나프타가 멕시코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8) 라티노(Latino/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며, 치카노(Chicano/a)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자들을 가리킨다. 원래 치카노란 미국에서 출생한 멕시코인을 뜻하기도 하고, 일이나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온 사림들은 'Mexican'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 라티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연진, 「미국 내 라티노 이민의 이미지와 라티노 위협론-멕시코 이민을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112, 2012, pp. 36-67. 임상래,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이담, 2013.

를 기준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사실 미국 이민정책 배후에는 인종주의, 다문화주의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법 개정은 수차례 이루어져 왔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사회적·경제적 문제이기보다는 불법이민자 지위의 합법화나 국경수비 강화 등의 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안보 이슈를 최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문제 특히 불법이민자 문제는 미국 안보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자국민들에게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향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닌다.[29]

미국과 멕시코 경계는 합법이든(연간 약 3억 5천만 명) 불법이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주자들이 국경횡단을 경험한다. 연간 250만 명의 멕시코인이 미국 국경을 합법적으로 넘어오며, 불법 이민자로 체포된 수는 1995년 한 해 동안 120만 명에 달한다.[30] 매일 일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통근 월경자의 수는 국경도시 전체 인구의 1/10에 달하며, 이 중 다수는 불법이민자들이다.[31] 유엔인권위원회는 '불법 이민자(illegalimmigrant)와 같은 단

---

29) 헌팅턴은 「히스패닉의 도전」에서 라티노 이민자들의 문화를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에기반한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파악한다(그의 글은 Foreign Policy 2004년 3/4월호에 실리고 Who are we? 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됨). 그는 인종주의적, 폐쇄주의적 태도로 백인 주류 사회의 심성에 호소한다. 반면, 탈식민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린다 마르틴 알코프(Linda Martín Alcoff)나 미뇰로는 라티노 인구의 미국 내 증가에 대해 미국과 제국을 탈식민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체제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30) M. Parfit, "Tijuana & the border", *National Geographic*, 190-2, 1996, pp. 94-107.

31) 불법이민자 중 62%가 멕시코인이고 2000-2009년 사이에 42%의 증가율을 보인다. Jeffrey S. Passel·Cohn D'vera, "Trends in Unauthorized Immigration: Undocumented Inflow Now Trails Legal Inflow", *The Pew Hispanic Center*, Oct. 2.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94.pdf.

어의 인권적 차별성을 들어 이 단어 사용을 금지하자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나 '미승인이민자(unauthorized migrant)'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32]

세계화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자본과 노동에 따른 세계적 이주의 현상이라고 볼 때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주민(불법 이주를 포함하여)의 문제는 오늘날 초국적 거대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자본에 내재한 탈영토·탈경계적이며 유동적인 특성이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국가를 비롯한 공적인 영역을 파괴하고 지배하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원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나프타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낄라도라 산업의 번성은 국경 경제의 공동체적 기반을 공고화 시켰음에 틀림없다. 국경경제는 미국의 자본·기술과 멕시코의 노동을 결합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불균형하지만 통합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나프타 이후 마낄라도라 산업의 번성으로 인해 멕시코 국경 도시들은 멕시코 국내와의 통합보다 오히려 미국사회의 소비와 생산이 요구하는 기능적 요구에 더 충실해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국경도시의 배후지로 전락되고, '양국적 도시화(binational co-urbanization)'는 명목 뿐 실제로는 미국 도시에 의존하는 종속적 식민도시로 변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탈영토', '탈경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을 증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국적화로 인해 멕시코는 영토상실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위력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종, 계급, 젠더의 측면에서도 불평등하게 위계화된 세계화의 함

32) 주미영,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멕시코 간 갈등과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28-2, 2010, p. 417.

정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은 '불법과 차별의 공간'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죽음의 공간'이 된다. 국경도시를 통해 밀입국한 멕시코인들의 수치는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약 7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3천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다. 문제는 이 숫자가 아니라 월경 시도 중 다수가 거친 환경과 국경 순찰대 및 국경 방어 장비에 의해 죽음과 폭력 그리고 상해 및 성폭력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1993년~2004년 사이 558건의 밀입국자의 죽음이 발생했으며, 그 중 불법입국과 관련된 374건 중 99%가 멕시코인들이었다. 사망자 연령은 전체적으로 14-75세 사이로 광범하지만 주로 20-29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이 88%, 여성은 12%에 달한다.[33] 특히 여성 불법이주는 나프타 이후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주의 과정으로부터 정착 이후에까지 성폭력, 여성살해(femicide), 매춘업, 마약 및 에이즈와 연관되어 국제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34]

최근의 잇단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일상적 월경자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모두 국경 넘나들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멕시코 국경도시들은 마약과 관련된 살인과 폭력으로 관광수입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 결국 시우닫 후아레스나 몬테레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 가족이 미국으로 탈출

33) Madleine J. Hinkes, "Migrant deaths along the California-Mexico border: A anthrop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3-1, 2008, pp. 16-20.

34) 특히 여성의 경우는 불법이주와 관련하여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제적 변화가 노동력의 착취와 성적 폭력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남긴다. 또한 불법이주를 원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살인과 폭력에 노출된다. 실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여성에 대한 살인의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저임금 고용형태로 인해 마낄라도라 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 밀입국 장소는 주로 엘파소와 시우닫 후아레스가 중심이었으나, 9·11 이후 국경통제가 강화되자 애리조나 사막지대가 주 무대가 되면서 더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무장지대로 변질되어 죽음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밀입국자를 분석한 장세용은 미국의 국경통제 정책의 변화와 국경지대의 밀입국자의 체포와 송환에 의해 이 공간이 '시신정치'를 배경으로 잔인함(cruelty)의 장소학(topography)의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35]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세계화의 폭력과 연관하여 제국의 권력에 희생되는 여성을 그린 볼라뇨의 『2666』은 신자유주의 '축복' 뒤에 숨겨진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저임금, 권리의 박탈,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결여, 치안의 부재, 폭력과 살인, 죽음의 위협 등을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제적 변화와 연결 짓고 있다.

사실 미국-멕시코 국경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위험한 장소이다. 이곳은 마약, 밀매, 매춘이 범람하면서 망명자들과, 부패한 경찰 그리고 일부는 가장 관대하지 못한 자연적 환경이 놓여 있다. 과거 국경 통신들은 주로 마약-밀매와 불법이민자들의 도망에만 과도하게 집중해 왔지만,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로 몰래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사망자 수는 국경을 넘어 미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도 이 제국의 깊은 사막 속에서, 샌디에고 주변의 눈덮힌 산꼭대기에서, 아리조나의 강렬한 여름 폭염 속에서 위험에 빠진 이주자 그룹들은 목숨을 걸고 이주의 행렬을 멈추지 않는다.[36] 그들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35) 장세용,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91, 2014, p. 320.

36) Ken Ellingwood, *Hard Line: Life and Death on the U.S.-Mexico Border*,

것이며 이들의 행보는 나프타와 '깨어진 약속'에 기인한 것이다.

5. 세계화의 교차로: 마낄라도라 산업과 삶의 공간[37]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서구 세계의 복합적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교차점이며 내·외부의 경계가 없는 뫼비우스의 띠의 구조를 가진다. 이 국경지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세계화 시대의 폭력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공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반면, 세계화의 결과물인 국경지대의 마낄라도라 산업의 번성과 진보는 세계화가 야기한 야만적 폭력과 공포의 산물이면서도 활력과 생명력을 분출시키는 양면성을 보인다. 마낄라도라 산업의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 경제를 포함한 사회, 문화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국경지대의 산업화는 본격화 되었고, 그로 인해 멕시코 국경에는 산업과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고용의 기회와 소득의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 시민들은 국경을 넘어와 값싼 기념품 및 가죽제품을 구입하거나 레스토랑을 찾으면서 이곳의 관광수입도 증대했다. 마낄라도라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인과 멕시코인 모두 매일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러한 월경통근자의 숫자는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를 넘는 수에 해당하고, 경제적 규모로는 전 멕시코 경제의 1/6을 웃돈다.[38]

Vintage Books, 2005, pp. 2-5.

37) 이 장의 일부 논의는 『로컬리티 인문학』, 2015, 13권의 김미경, 「세계화의 위기와 교차로: 미국-멕시코 국경」과 유사성이 있음을 밝힙니다.

38) 2010년 멕시코 북부 국경 6개 주의 산업인구는 멕시코 전체의 약 26%에 달한다. 멕시코에서 마낄라도라 산업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마낄라도라 산업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벗어나서 탈근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미국 자본과 멕시코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통합경제'를 바탕으로 한 '탈국가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국경은 브라세로-마낄라도라-북미자유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초국가적·통국가적 조합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 국경은 나프타로 인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경제협력과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밀입국자에게는 '죽음의 땅'이지만 근로자에게는 '기회의 땅'이며 '삶의 공간'이 되어 에너지가 분출되고,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혼종성으로 인한 '혼종적 주체'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공간이다.

인간애를 부르짖으며 불법 월경으로 죽음에 노출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호단체들의 모습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배경으로 타자를 배척하는 근대성의 모순을 더 이상 볼 수 없다.[39]

같다. 1942년에 시작된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디아스 대통령의 개방정책으로 인한 미국 자본의 투자, 미국 남서부의 농업에 대한 멕시코인 노동력의 공급, 미국의 금주법(1920-1933) 등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양국 국경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중심축이 '스노우벨트'에서 '선벨트'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남서부가 급격하게 발전한 결과 멕시코 내륙으로부터 미국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국경지대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며, 직접적 원인은 나프타와 마낄라도라 산업으로 인한 국경지대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공장의 규모는 1992년에 약 2천여 개,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2000년에는 3,655개의 공장과 130만 명의 고용인으로 증가하여 멕시코 경제의 기반이 되었다.

39) '인간의 국경'(Robin Hoover 목사가 설립), '사마리아인'(2002년 설립), 'NMM'(2004년 설립) 등은 애리조나의 일부 시민 조직들이 월경자들에게 급수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푸른 깃발', '긴급 의료품', '급수' 등을 통해 월경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 캠프를 운영한다. 민간인 단체에 의한 구호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R. L. Doty, "Fronteras Compasivas and the ethics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Milenium* 35, 2006, pp. 53-74; C. Weber, "Reflections on the virtual (de)territorialization of the US-Mexico border", *Environment and Planning Society & Space*, 30-3, 2012, pp. 482-496.

미국 정부의 통제조치와 상반되는 민간인에 의한 사적 구호캠프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다중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공통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제국의 권력 구조 시스템은 이러한 노력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지만, 다중에 의한 공통체는 타자를 배려하며, 경계의 윤리적 초월성을 바탕으로 부단히 세계시민주의를 표출하고 있다. 비록 시민단체들에 의한 구조의 노력이 미미한 효과만을 거두고 근본적으로 월경의 동인을 차단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호모 사케르'와 '예외 상태'의 개념을 변혁시키는 실천적 활동의 일부로 간주된다.

나아가 마낄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멕스아메리카(Maxamerica)'[40]는 혼종적 주체들에 의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래 이 지역은 아픈 기억으로 소외되고 잊혀진 주변부 땅이었지만, 지금은 인구와 문화의 혼종성으로 인해 다문화성을 바탕으로 한 역동성의 땅이 되었다. 미국 내에서 멕스아메리카는 경제적 붐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은 국경에 위치한 트윈시티(쌍둥이 도시 또는 대안도시)로써 샌 디에고-티화나(San Diego-Tijuana)는 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경 지대에서도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90년대에는 26%에 달하는 인구 성장을 보이며 국경지대의 쇼핑과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다음으로 맥시칼리는 마낄라도라 산업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73%에 달하는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엘파소와 시우닫 후아레스는 멕시코와 미국 간 주요 통과지역으로 국경 중 상업용 물류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인들의 다수는 관광과 쇼핑을

40) 멕스아메리카에 대한 논문은 임상래의 다음 논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임상래「멕시코-미국 양국 관계에 관한 소고; Mexamerica를 중심으로」,『이베로아메리카』4, 2002, pp. 101-126.

위해 국경을 넘고, 국경도시 중 일부는 도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월경통근자들이 매일 일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결국 세계화로 인한 나프타와 마낄라도라 산업의 번성은 미국과 멕시코 사람들 모두에게 언어로부터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나프타의 실패한 결과를 두고 부정적인 측면을 피력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실제 마낄라도라 산업의 경제적 실패(?)의 또 다른 이면에 작동하는 노동과 자본을 중심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화적 혼종성으로 나타난 혼종적 주체들의 탄생은 '스팽글리쉬(spanglish)'의 사용으로부터 미국 내 치카노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호세 바스콘셀로스(Jose Vasconselos)의 말처럼 "신인종, 신인류"가 여기서 탄생한다고 할 수 있다.[4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혼종문화의 창조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칸클리니(García Ganclini)는 그의 저서인 『혼종문화』에서 탈국가적 문화횡단을 통한 '제3의 국가'의 창조를 통해 미래의 제국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한다.[42] 비록 그의 견해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관점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의 혼종화는 지금까지 근대 이래로 세계를 지배해온 이분법적인 구분, 즉 서양/동양, 전통/근대, 고급문화/민중문화 상층부/하층부, 선진국/후진국 중심/주변 등의 개념을 해체하는 방법적 기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혼종화는 더 이상 '국가'나 '국가적

41) 바스콘셀로스는 이를 가리켜 "우주적 인종(raza cósmica)라고 명명했다. 이 말은 원주민 문화에 유럽의 시각과 철학이 가미되어 혼종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혼종성'이야 말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역동성이 되었다.

42) Canclini, 『Cult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이성훈 역,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그린비, 2011.

거대서사'의 범주를 벗어나 경계문화 또는 '제3의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칸클리니가 의미하는 '제3의 국가'란 문화적 혼종성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 영토나 주권상의 현실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칸클리니는 세계화라는 현재적 조건이 메스티사헤와 혼종화 개념의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성' 보다는 '상호문화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혼종화 정치를 강조하면서 "역사와 문화들 간의 전쟁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 이견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전쟁 상태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혼종화 상태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43]라고 주장함으로써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계는 상호문화적인 혼종의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세계화의 개념을 논할 때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보다 문화적 세계화의 영향력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44] 경계지대의 문화적 혼종성이야말로 탈근대의 포스트-네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티후아나에서 나타나는 혼종화는 현재적이고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건들이다. 칸클리니가 예견했다시피 이러한 혼종화는 초국가적 상황에서 문화 간 접촉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조형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틀임에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43)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p. 23.

44) 문화적 세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덕호, 「미국화인가, 세계화인가: 코카콜라를 통해 본 글로벌리즘」; 김미경, 「세계화·세방화·다문화-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Jan Nederveen Pieterse,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 Mike Featherstone·Scott Lash·Ronald Robertson,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John Tomlinson, *Globalization and Culture,* 김승현·정영희 역, 『세계화와 문화』, 나남, 2004.

를 세계화 시대 혼종화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짚어보는 것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국민국가에서 포스트-네이션으로의 전환을 상상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대안공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6. 결론: 혼종적 주체와 '제3의 공간'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디아스 대통령이 "신은 너무나 멀리 있고, 미국은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라고 한 탄식이나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게 멕시코와의 관계가 힘든 것이라면 멕시코에게 미국은 너무나 고통스런 존재"라고 했던 표현은 이 두 국가가 역사적으로 협력과 대립의 관계를 이루어 왔음을 증명한다. 텍사스의 독립선언으로부터 미국-멕시코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중미내전과 파나마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멕시코는 역사를 함께 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는 제1세계와 제3세계, 제국의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명한 차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제국이 큰 틀에서 전 지구적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날 영국 이후 미국이라는 단일의 헤게모니가 비대칭적 다극체제의 불안정한 효과에 비해 오히려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45] 진정으로 미국이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통해 미 제국을 바라보면 외부적으로는 근대성으로서의 장소와 공간을 위한 경계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민자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끊임없

45) 박지향, 「왜 지금 제국인가」, pp. 14-16.

이 제국 내의 내부적인 층위 구분을 통해 경계를 생성해 낸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탈근대의 제국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근대성 속의 제국주의를 실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핵무기, 자본, 에테르를 바탕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우리가 사유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진정한 제국의 탄생을 위해 변화해야만 하는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다. 미국에게 국경지대의 멕시코인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위주체들이 아니라 진정한 생산적인 힘을 가진 다중의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처럼 미국 헌정은 유럽의 근대적 주권 개념, 즉 권력의 내재성이라는 사상에 기초한다. 그러한 권력의 내재성의 개념은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중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권이란, 결과적으로 다중을 규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생산적인 시너지들의 결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46]

오늘날의 제국은 자본의 힘에 의해 움직이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을 중심에 둔 경제적 세계화는 확실히 멕시코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중심부 자본의 경제적 폭력에 의해 주변부인 멕시코는 불안정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 제국은 멕시코를 세계경제에 통합시켜 세계시장의 위험과 보상에 노출시킴으로써 적은 이익과 큰 손실을 겪게 만들어 19세기 이래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미친 착취와 억압이 재현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실례가 바로 나프타와 '깨어진 약속'으로 나타났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인에게는 어떤 주권의 행사도 할 수 없는 '예외상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공간'

46) 네그리 · 하트, Ibid., p. 164.

이다. 이 공간 속에서 그들은 이민배척주의와 인종주의로 배제되고 주변화 되며 저임금과 차별로 점철화된 '벌거벗은 생명' 들임을 확인한다. '평평한 세계'를 부르짖는 세계화는 그 가면 뒤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라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자본과 국가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에 기대어 자신의 권능을 더욱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와 마낄라도라 산업은 멕시코와 멕시코인들에게 고용의 창출과 초국경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제공하여 이 접경지대가 '삶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오늘날의 세계화가 국경의 내부와 외부를 허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라티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국경도시들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지형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두 지역의 밀접한 관계의 지속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혼종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지대의 '스팽글리쉬'의 등장으로부터 관광과 쇼핑에 이르기까지 초국경을 통해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은 미래의 공간, '제3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엘파소와 시우닫 후아레스는 더 이상 다른 국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곳의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후아레스의 청소년들이 학교 등교를 위해 엘파소행 버스를 타는 모습은 국경이 이제 이동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접경지대에서는 더 이상의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멕시코의 초국경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는 소외되고 배제된 경계 밖의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민족국가가 지향했던 단일화된 통일체를 거부하며, 대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다양체인 다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통체를 구성해야할 시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

이다. 이 공간에서 탄생하는 혼종적 주체들은 자유로운 개체들로 구성된 '창의적 다중'들로써 새로운 '우주적 인종'이 되며, 이들의 네트워크인 '공통체'의 형성은 진정한 제국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진보가 남긴 근대성의 문제를 반성하게 하고, 세계화로 인한 중심과 주변, 안과 밖, 권력의 시스템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원성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혼종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파편화를 우려하는 헌팅턴은 미국 내 라티노의 증가에 대해 조만간 미국은 '라티노 미국'과 '앵글로 미국'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푸엔테스와 미뇰로는 이민의 나라인 미국이 라티노와의 문화적 혼종성으로 이미 동질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남서부, 특히 남서부의 핵심 국경지역이 이미 문화적으로 '멕스웨이(Maxway)'를 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임상래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47]

미뇰로는 '진정한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3의 공간 창출은 어려울 것이며, 혼혈이나 문화적 혼종만으로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공간에서는 강자(미국)와 약자(멕시코)의 문화적 충돌 속에서 약자 문화가 강자에게 흡수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문화 또한 상호충돌의 과정을 통해 문화 간 상호 작용으로 새로운 문화의 창출 속으로 용

47) 미국 내 라티노 세력의 증가를 경고하는 헌팅턴은 "양국의 국경은 녹는 중이고 흐려지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멕시코 국경선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다."라는 말로 미국의 혼종문화를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미국 남서부는 멕시코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임에 틀림없지만, 이제 그 땅은 전쟁 없이 멕시코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임상래, 「미국 남서부의 문화지리적 이해: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2-1, 2009, p. 87.

해된다.

미뇰로의 혼종성에 관한 설명은 문화적 이론 분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대의 담론이 조작해 온 유럽중심의 보편성의 신화의 틀을 깨고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중심과 주변, 내부와 외부, 부자와 빈자, 상층부와 하층부, 남과 여, 지배와 종속 간의 모든 경계는 허물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문화의 탈영토화와 다중에 의한 '공통체'의 형성으로 민족국가와 영토를 넘어선 진정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약속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전체 역사를 통 털어 볼 때, 제한과 통제를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했음에도 결국 역사적으로 팽창주의가 우세해 왔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더 이상 유럽형 제국주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국적 지배 주체의 탈영토성을 회복하고 다중의 '절대적 민주적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한 제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는 우리의 현실에도 많은 함의를 준다. 세계화와 이주의 현상으로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폐쇄적 민족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포함하여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북 접경지대는 비록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처럼 절합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공간이며 층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재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미국이 마길라도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행사 하면서 또 다른 세계화의 함정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 인해 탈경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폐쇄적 민족주의와 타자성을 다양성과 혼종성을 본질로 하는 라티노 사회를 통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택구,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성격과 동향」, 경주사학회, 『경주사학』 26, 2007, pp. 183-198.

김달용, 「1990년대 멕시코 대미관계의 현상과 전망: NAFTA의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6, 1993, pp. 1-34.

김연진, 「'라티노의 위협'인가, '라티노 시대의 도래'인가?: 라티노를 바라보는 시간과 그 문제」, 단국사학회, 『사학지』 47, 2013, pp. 155-180.

_____, 「라티노 이민, 반 이민정서, 그리고 "미국의 위기"」, 단국사학회, 『사학지』 47, 2013, pp. 95-124.

김학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1998, pp. 81-112.

로버츠 브라이언,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이 이민과 범죄에 미치는 작용의 변화와 악순환」, 『라티노/라티나』, 김현균 · 이은아 편, 한울, 2013, pp. 165-196.

박정원, 「공포의 시뮬라크르를 넘어 경계의 윤리학으로: 『2666』에 나타난 세계화 시대의 상징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원, 『Revista Iberoamericana』 23-3, 2012, pp. 1-26.

서관모,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으로의 이행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4-2, 2007, pp. 1-28.

이성형,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 · 사회적 효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76, 2007, pp. 165-323.

이성훈, 「라티노 이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스페인 어문학』 56, 2010, pp. 525-545.

이은아, 「라틴아메리카와 라티노 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쟁점: 혼혈담론과 문화 혼종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59, 2008, pp. 1-30.

이화용,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다중과 지구적 민주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54-1, 2014, pp. 9-34.

임상래, 「멕시코-미국 양국 관계에 관한 소고: Mexamerica를 중심으로」,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4, 2002, pp. 101-126.

_____,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 한국라틴아

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2004, pp. 199-233.
_____, 「미국 남서부(Southwest)의 문화·지리적 이해: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22-1, 2009, pp. 75-98.
장세용,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와 밀입국자 - '생명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제』 91, 2014, pp. 313-351.
주미영,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멕시코 간 갈등과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28-2, 2010. 2, pp. 415-444.
Agamben, Gorgio, *Home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호모 사케르의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주혜연 역, 새물결, 2008.
Agamben, Gorgio, *State of Excep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예외상태』, 김항 역, 새물결, 2008.
Anderson, Joan B., *Fifty years of change on the U. S.-Mexico border: growth,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Androff, David K. and Kyoko Y. Tavassoli, "death in the desert: The human crisis in the U.S.- Mexico border", *Social Work*, 57-2, 2012, pp. 165-173.
Campbell, Colin, "From Social Control to Social Instability: US-Mexican Relations in the 'War on Drugs' (2000-2008)",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 연구』 23-3, 2010, pp. 185-219.
Córdoba, María Socorro Tabuenca, "Sketches of identities from the Mexico-US border (or the other way around)", *Comparative American Studies*, 3-4, 2005, pp. 495-513.
Cunningham, Hilary, "Transnational politics at the edges of sovereignty: Social movements, crossings and the state at the US-Mexico border", *Global Networks,* 1-4, 2001, pp. 369-387.
Darling, Jonathan, "Becoming bare life: Asylum, hospitality, and the politics of encam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7, 2009, pp. 649-665.
Davidson, Miriam, *Lives on the Line: dispatches from the U.S.—Mexico Border,*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0.
Garcia, Maribel, "Life along the NAFTA Highway: Transnational Living Strategies on the US/Mexico Border", *Cultural Dynamics*, 18-2,

2006, pp. 139-162.
Fregoso, Rosa Linda, *meXicana Encounters: The Making of social Identities on the Borderlan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Fregoso, Rosa Linda, "Toward a Planetary Civil Society", Denise A. Segura, Patricia Zavella eds., *Women and migration in the U.S.—Mexico Borderlands: A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2010.
Ganster, Paul, Lorey, David E., *The U.S.-Mexican Border in to the Twenty-First Centu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8.
Gomberg-Muñoz, Ruth, *Labor and Legality: An Ethnography of a Mexican Immigrant Netw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Herrera, Eduaro Barrera, "The US-Mexico Border as a Paradigm of Post-Nafta Mexico", *Organization*, 4-4, 1997, pp. 487∽495.
Hinkes, Madleine J., "Migrant deaths along the California-Mexico border: A anthrop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3-1, 2008, pp. 16-20.
Martínez, Oscar J., *Border People: Life and Society in the U.S.-Mexico Borderland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
Mbembe, Achille, "Necropolitics", tr. by Libby Meintjes, *Public Culture*, 15-1, 2003, pp. 11-40.
Morales, Maria Cristina and Benjarano, Cynthis, "Transnational sexual and gendered violence: an application of border sexual conquest at a Mexico-US border", *Global Networks*, 9-3, 2009, pp. 420-439.
Nevins, Joseph, "Dying for a Cup of Coffee? Migrants Deaths in the US-Mexico Border Region in a Neoliberal age", *Geopolitics*, 12-2, 2007, pp. 228-247.
Regan, Margaret, *The Death of Josseline: Immigration stories from the Arizona-Mexico borderlands*, Beacon Press, 2010.
Riosmena, Fernando, Douglas S. Massy, "Pathways to El Norte: origins, destin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MR*, 46-1, 2012, pp. 3-26.
Rosenberg, Judith, "the Rhetoric of Globalization: Can the Maquiladora Worker Speak?", Dissertation, Ph. 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6.
Saldívar-Hull, Sonia, *Feminism on the Border: Chicana Gender Politics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Sanchez, Sarina, with Estrada, Antonia Arias and Salas, Margarita Avalos, "Transcending Borders: Testimonies of Resistance on the US–Mexico Border", *Aztlán: A Journal of Chicano Studies*, 38–1, 2013, pp. 221–234.

Slack, J. and S. Whiteford, "Violence and Migration on the Arizona–Sonora border", *Human Organization* 70–1, 2011, pp. 11–21.

St. John, Rachel C., *Line in the sand: A history of the western U S. –Mexico border*, Princeton, 2011.

Tuňon, Magalî Murio, *Enforcing Boundaries: Globalization, State Power and the Geography of Cross–Border Consumption in Tijuana, Mexico*, Ph. D. dissertation i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2010.

Warner, Eric John, "Borderlands and Identity: Migration and Representation", Dissertation, Ph. D.,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3.

Wright, Melissa, "Necropolitics, nacropolitics, and femicide: Gendered violence on the Mexico–U.S bord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6–3, 2011, pp. 707–732.

[Abstract]

The U.S.—Mexico Borderland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Space of Life and Death

Kim, Mee-Kyung

This article addresse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Boderlands in regard to the shared experiences of migration whether being legal or illegal.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supernationalism based on hybridity' and look for 'the third space(Canclini) for the alternative communities instead of the nation-states. It also proposes a glimpse into the role of transnational companies-Maquiladora, and neo-liberal policies in diminishing national identities of the Nation-State. The border has represented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and modernity on the basis of nation and territory. No longer, however, the borderlands represents power of the extreme markers of sovereignty and nation-states which inscribe the territorial limits of states.

It is very important that U.S.-Mexico Borderlands must have considered and studied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ization. Because this place has being experienced supernationalism from above and also ethnonationalism and regionalism from below because of the phenomena of globalization.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e out the alternative space instead of nation-state, which is 'the third space consisted of Cosmic People'.

Key words: U.S.-Mexico Borderlands, border-crosser, Hybridization, Exceptions, migration, The Third-Space, Globalization,

김미경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연락처: 010-8567-2234
전자우편: meek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3월 30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